

☉ 교회목표 ☉

- 1. 천국시민 양성
- 2. 만민에게 전도
- 3. 빈약한 자 구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 순례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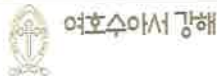
☉ 2006년도 표어 ☉

교회, 백성의 위로자(사40:1)

☉ 행동지침 ☉

- 1. 세계 복음화
- 2. 교회 친국화
- 3. 문화 기독교화

† 발행인 : 이 중 윤 † 발행처 :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210 전화: (02) 558-1106 팩스: (02) 558-2107 www.seoulchurch.or.kr



## 땅을 나누라

(여호수아 13:1-19:51)

여호수아서는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12장까지는 가나안 정복에 대해, 13-24장까지는 땅의 분배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정복은 단순히 몇 차례의 전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여호수아의 나이가 많았으나 아직도 젊령해야 할 땅이 많이 남았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 지파를 따라 땅을 나누어 주고 그 곳에 거주하면서 가나안을 정복하도록 하셨습니다.

### 1. 땅의 분배

13-17장에 나타난 분배는 요단 동쪽을 르우벤, 갓 그리고 므낫세 반 지파에게, 남쪽을 유다 지파, 북쪽을 에브라임과 므낫세 반 지파에게 주었습니다. 이 같은 배치는 군사적 목적이 있는 것으로 요단 동편과 가나안 남북에 비교적 강한 다섯 지파를 배치함으로써 다른 지파를 보호한 것입니다.

### (1) 르우벤, 갓, 므낫세 반 지파(13:8-33)

이들은 요단강을 건너기 직전 요단 동편이 가축 기르기에 적당한 곳이라서 가축과 가족을 남겨놓고 자기들이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을 정복할 터이니 이 땅을 달라 하므로 모세가 조건부 허락을 한 것입니다(민 32장).

### (2) 유다 지파(15:1-63)

남쪽 지방이 유다 지파에 분배된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유다는 야곱의 열 두 지파 중 다스리는 권한을 받았습니다. 왕족이 유다에게서 나오고 마침내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다 지파에서 나왔습니다(창 49:8-12).

### (3) 에브라임과 므낫세 반 지파(16:1-17:18)

토지 분배 과정에서 므낫세의 현손 슬로브핫의 다섯 딸에게 중요한 땅이 배분되었습니다(17:3-6). 땅은 대개 아들들에게 주어졌으나 슬로브핫은 아들이 없었고 딸들이 모세의 책에 의거해서 호소하므로 땅을 얻어냈습니다.

### 2. 실로에서 제비 뽑아 남은 땅을 나눔

여호수아는 남은 땅을 7등분하여 제비를 뽑아 나누었습니다. 제비를 뽑는 것은 그 결과를 하나님의 선택으로 믿기 때문입니다.

### (1) 베냐민 지파(18:11-28)

베냐민 지파는 에브라임과 유다 사이에 있는 지역을 받았습니다. 이 지역은 큰 지경은 아니었지만 중요한 곳들이 포함되어 있는 지역이었습니다.

### (2) 시므온 지파(19:1-9)

시므온은 자신의 영토를 받지 못하고 유다 안에 있는 땅을 할당받았을 뿐입니다. 레위는 지파별 할당이 없었고 다른 지파들의 영토에 흩어져서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그들의 흩어짐은 다른 지파와 자신들에게 오히려 복이 되었습니다.



이중윤 목사(서울교회 담임)

많은 지도자들은 남에게 일을 맡겨 놓고 자기는 타인이 일한 대가만을 즐기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이스라엘처럼 자기에게 주어진 것을 잘 관리해야 합니다. 지식, 거룩함, 성령의 은사 등 하나님이 주신 것을 잘 소유하고, 소유하는 데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섬기는데 활용해야 합니다. 세상과 그 나라들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 주어졌습니다. 우리에게는 각자를 위한 땅이 있지만 그 땅을 소유하기 전에 우리 자신이 먼저 그리스도에 의해 소유되어야 합니다.

### (3) 스불론 지파(19:10-16)

스불론은 비교적 작은 지파로서 북쪽에 정착했습니다. 그 곳은 맛깃도 평지 북편, 갈멜 산 동편입니다.

### (4) 잇사갈 지파(19:17-23)

잇사갈은 스불론과 함께 야곱의 첫째 아내 레아의 소생입니다. 그들은 어려서 함께 성장하던니 영토도 이웃하게 되었습니다. 잇사갈은 스불론 동편 므낫세의 북편에 있었습니다.

### (5) 아셀 지파(19:24-31)

아셀 지파는 북쪽에 있는 갈멜 산에서부터 시돈까지 지중해 연안에 있었습니다. 이 땅은 매우 기름졌지만 이방 도시들의 영향을 받아 도덕적으로 부패했고 특히 두로와 시돈이 그러했습니다.

### (6) 납달리 지파(19:32-39)

납달리 지파의 땅은 내륙에 위치하였고 가벼나움, 가나, 벳세다가 여기 있습니다.

### (7) 단 지파(19:40-48)

비교적 남단에 위치한 단의 영토는 지중해와 예루살렘 사이에 있습니다.

이 모든 분배를 마친 후 여호수아에게는 그가 구한 성읍 에브라임 산지 담낫세라가 주어졌습니다. 이 일은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족장들이 실로에 있는 회막 문 여호와 앞에서 제비 뽑아 나누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군사적으로나 영적으로나 매우 만족스런 분배였습니다.

###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과 하나님 백성을 섬기는 일을 끝까지 감당한 여호수아는 신실했습니다. 여호수아는 90세가 넘어서도 가나안 정복을 완수할 때까지 계속 전진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정복의 대업을 완수할 때까지 자기를 위한 땅을 받지 않았습니다.

많은 지도자들은 남에게 일을 맡겨 놓고 자기는 타인이 일한 대가만을 즐기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이스라엘처럼 자기에게 주어진 것을 잘 관리해야 합니다. 지식, 거룩함, 성령의 은사 등 하나님이 주신 것을 잘 소유하고, 소유하는 데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섬기는데 활용해야 합니다.

세상과 그 나라들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 주어졌습니다. 우리에게는 각자를 위한 땅이 있지만 그 땅을 소유하기 전에 우리 자신이 먼저 그리스도에 의해 소유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소유가 되고 그리스도는 우리를 영원히 다스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 ■ 이중윤 목사 방송설교 ■

- TV: **케이틀 CH 42(기독교TV)** 매주 월 오후 1시30분 · **위성 CH 412(CBS TV)** 매주일 밤 9시(각 지역별로 케이블 TV로도 시청가능)
- **KBS(코리아 위성방송) 제3채널(북중미 지역 해외방송)** 매주 월 오후 1시30분(한국시간)
- **라디오: HLKY 98.1 MHz(기독교 방송) <성서강해>** 매주 화 오전 5시30분 · **HLXK 106.9 MHz(극동 방송) <생명은 빛으로>** 매주 금 오전 9시
- **인터넷: 기독교 TV** (<http://www.cts.tv>) · **기독교 방송** (<http://www.cbs.co.kr>) · **중국어 인터넷방송** (<http://www.c-highway.com>)

# 가을 일제심방

우리교회는 해마다 두 차례씩 교역자들이 일제심방을 실시한다. 9월부터 시작되는 일제심방을 통해 각 가정의 영적 부흥과 다락방의 건강증진을 도모할 것이다. 특히 2007년도 교회의 일꾼을 찾는 일과 은사를 확인하고 봉사에 자원하는 기회를 삼도록 해야겠다.

## 새 번역 주기도문 · 사도신경 해설 배포

### 제 91회 총회 총대 전원에게

새로 번역된 주기도 · 사도신경을 한국교회가 사용하도록 기도하고 있는 우리교회는 지난 9월7일(목) 대한예수교 장로회 제91회 총회 총대 1500명 전원에게 '새 번역 주기도문과 사도신경 해설'(이종윤 목사 저)책자를 발송하였다. 9월18일에 열리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제91회 총회에서 반드시 새 번역 주기도문과 사도신경이 통과되도록 주님이 총대들의 마음을 감화 감동 시켜 주시도록 모든 성도들의 기도가 요청된다.

## 파송받을 선교사

### - 목회동역 시작 -

금년 11월 26일 파송예정인 선교사들이 지난 주부터 교역자들과 함께 서울교회에서 목회동역을 시작했다. 금년 파송예정 선교사들은 신문래/이은숙 선교사(러시아), 이항명/손혜신 선교사(이스라엘), 전광해 선교사(터키) 등 5명이다. 올교회 가족됨을 확인하고 성도들과 교제를 통해 기도 동역자를 얻는다. 파송예정 선교사는 신문래/이은숙 선교사(러시아), 이항명/손혜신 선교사(이스라엘), 전광해 선교사(터키) 등 5명이다.

## 주부대학 공개강좌

### 12일(화), 19일(화) 오전 10시 602호에서

주부대학(학감: 이복규 장로)에서 공개강좌를 연다. 주부대학은 모든 성도들이 함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9월 12일(화)과 19일(화) 강의를 통해 가정과 자녀 교육에 관심이 있는 성도들이 함께 들을 수 있도록 공개강좌로 진행한다. 9월12일(화)에는 오전 10시 602호에서 이영숙 교수(밀알유치원장, 단국대 교수)의 '가정을 세우는 성품교육'을 9월19일(화)에는 오전 10시 602호에서 이두표 교수(숭실대)의 '효과적인 자녀교육'을 공개강좌로 연다.

## 2007년 섬김위원 요람 제작

### - 교인사진촬영 -

### 10일, 17일, 24일(주일) 104호

우리교회는 2007년 섬김위원 요람 제작준비로 교인사진 촬영을 시작한다. 직분자 중 교회에 비치된 사진이 없는 성도는 필히 사진 촬영에 임해주시기 바란다. 사진촬영은 오늘 9월10일(주일)부터 9월24일(주일)까지 3주간 104호(응접실)에서 실시한다. 사진촬영대상: 2006년 현재 교회비치 사진이 없는 서리집사 이상 직분자

## 강남노회 남선교회 연합회 체육대회

### 9월16일(토) 오후 1시 대왕초등학교

강남노회 남선교회 연합회 주최 체육대회가 오는 9월16일(토) 오후 1시 대왕초등학교(세곡동 소재)에서 족구 게임 단일 종목으로 거행된다. 10여개 교회가 모여 열띤 경쟁을 벌이게 되는데 동대회 작년도 우승팀인 우리교회는 2연패를 이루기 위해 매주 토요일마다 맹연습을 하고 있다. 많은 성도의 지원(후원)으로 사기가 충천될 것으로 기대된다. 참가선수명단: 최광성, 원용범, 이종창, 김광태, 김상태, 홍창배, 이동만 집사 외 다수

# - 베들레헴 -

## 예수님의 탄생



베들레헴은 예루살렘에서 남쪽으로 약 7km 거리, 해발 800m의 산악지대에 자리하고 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의 집, 하란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향하던 길이 예루살렘과 베들레헴을 잇는 길과 일치하며, 아브라함은 가족과 양떼를 몰고 이 길을 지나갔다.

베들레헴은 사사시대의 효부 룻이 보아스와 결혼하여 예수님의 조상이 된 곳이며(룻 2:1), 다윗이 태어나고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부음 받은 곳이다(삼상 16:13). 무엇보다 1천년이 지난 후 선지자의 예언대로(미 5:2) 다윗의 가계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신 고장이다.

베들레헴의 중심 광장에 위치한 예수탄생교회는 아기 예수님을 누웠던 탄생 장소를 보존하여 놓았다. 하얀 화강암 바탕에 금빛 대형 별 모양의 탄생 구유 표시는 동방 박사 세 사람에게 구세주의 탄생을 알려 주고 그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찬양하며 탄생 선물을 바칠 수 있도록 안내해 주었던 별 모양을 상징한다. 예수탄생교회에서는 매년 성탄절 전야에 전세계의 모든 기독교 교파의 목회자들이 참가한 가운데 성탄 축하 기념행사가 열려 전세계에 방영되곤 한다.

베들레헴에는 목동들이 한밤중에 양떼들을 지킬 때 천사가 나타나 만백성의 구주가 태어났다고 전한 언덕과 동굴들이 보존되어 있는데, 지금도 유목하는 양치기들이 밤이 되면 동굴에서 지내는 경우를 흔히 볼 수 있다. 유년시절의 다윗이 양을 치던 곳, 다윗의 우물도 이 언덕에서 만나볼 수 있다(삼하 23:15-17).

순례팀은 예루살렘을 출발해 베들레헴을 둘러본 후, 예수님이 태어나시던 고요하고 거룩한 밤을 기념하며 <베들레헴 문화행사>에 참여할 예정이다.

나소정(편집부)

### 금주의 성구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네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매(누가복음 5:24)

But that you may know that the Son of Man has authority on earth to forgive sins. . . " He said to the paralyzed man, "I tell you, get up, take your mat and go home." (Luke 5:24 [NIV])

# 사도신경 · 주기도문 · 십계명에 대한 역사적이고 신학적인 이해

순례자는 오는 18일 열리는 제 91회 총회 때 주기도문, 사도신경의 재번역안 채택을 위해 기도하는 마음으로 3주에 걸쳐 다음과 같이 기획 연재 한다.



이형기 목사  
(장신대 교수, 역사신학)

- 1. 9월 3일 : 새 번역안 채택 추진 현황 - 김민철 (편집부)
- 2. 9월 10일 : 사도신경, 주기도문 십계명에 대한 역사적이고 신학적인 이해 - 이형기 목사(장신대 교수)
- 3. 9월 17일 : 주기도문과 사도신경 새번역의 원리- 조병수 목사(합신대 교수)

## 기독교의 진수 ... “믿음과 희망과 사랑”

일찍이 아우구스티누스는 기독교의 진수가 무엇인가를 묻는 그의 친구 라우렌티우스를 위해서 『기독교 입문서』(Enchiridion = A Handbook of Christian Religion, 421-423)를 출판하였다.

아우구스티누스는 그것을 “믿음과 희망과 사랑”이라고 하면서, 믿음은 <사도신경>에, 희망은 <주기도문>에, 그리고 사랑은 <십계명>에 각각 해당하는 것이라 하였다. 즉, <사도신경>은 성경의 요약으로서 교회가 믿는 믿음의 내용을, <주기도문>은 아버지의 나라와 아버지의 뜻의 온전한 실현을 희망하는 종말론적인 희망을, 그리고 <십계명>은 이 땅 위에서 혹은 역사의 지평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고 하는 이중적인 사랑(the double Love)을 말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셋이 한 쌍(a one triad) 혹은 삼위일체로서 하나가 다른 둘과, 다른 둘이 다른 하나와 불가분리의 관계 속에 있다. 사랑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고, 믿음이 없는 사랑은 뿌리가 없는 나무와 같으며, 희망이 없는 믿음과 사랑은 맹목적인 것이다. 이상과 같은 <셋이 한 쌍>은 중세교회를 거쳐서 16세기 종교개혁 교회로 이어진다.

그 유명한 루터의 {소교리문답}(The Small Catechism, 1529)은 십계명과 사도신경과 주기도문에 대한 신학적인 해석을 제시하고 있는데, 루터가 <십계명>을 맨 앞에 선행시키는 신학적인 이유는 그의 신학적인 주제들 가운데, “율법과 복음”(Law and Gospel)을 강조하기 위해서였다. 즉, 그는 인간이 “율법”을 통하여 먼저 자신의 죄를 분명히 인식하고, 그 다음에 “복음”을 신앙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생각하였던 것이다. 그가 두 번째 자리에 위치시킨 <사도신

경>은 “복음”신앙에 해당하는 바, 그 내용 전체가 명령법이 아니라 직설법이라고 루터는 주장하였다.

그리고 그는 <주기도문>을 세 번째 자리에 놓음으로써 신앙으로 구원 받은 사람이 지향해야 할 감사와 희망의 차원을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칼빈과 개혁교회 전통의 유산을 정리하고 있는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1563)은 세 기둥을 가지고 기독교의 진수를 제시하였으니, “인간의 고뇌에 대하여”와 “인간의 구속(救贖)에 대하여”와 “감사에 대하여”가 그것이다. 개혁교회 전통은 죄 많은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속함을 받아 샘솟는 기쁨과 감사로써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한다고 가르친다.

즉,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은 세 번째 자리인 “감사에 대하여”에서 <십계명>과 <주기도문>을 논하였으니, 이는 구원받은 기독교인들의 기쁨과 감사에 넘치는 거룩한 삶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었다. 샘솟는 기쁨과 넘치는 감사로써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뜻인 “이중적인 사랑”을 역사의 지평에서 실현해야 한다는 말이다. 루터는 <십계명>을 맨 앞에 놓고 있으나, 장로교 전통은 그것을 <주기도문>과 함께 맨 나중에 두고 있다는 점이 두드러진다 하겠다.

이와 같은 신학의 기본구조는 16세기 개혁교회의 신앙고백서들은 물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으로부터 20세기에 이르는 개혁신학의 기본구조를 결정한다. <셋이 한 쌍>을 이루는 <사도신경>, <주기도문>, 그리고 <십계명>은 기독교의 신앙과 희망과 사랑이 무엇인가를 말한다. <사도신경>은 구약에서 신약에 이르는 (하나님 나라를 지향하는) 구속의 드라마를 말해주고, <주기도문>은 종말론적으로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고, 아버지의 나라가 실현되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 위

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기원하며(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서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여졌고, 하나님의 나라가 구원되었으며,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처럼 이 땅 위에서도 이루어졌으나), <십계명>은 역사의 지평 속에서 이루어져야 할 하나님의 뜻(하나님 예배와 이웃사랑)이다.

그리고 주기도문의 나머지 부분(“일용할 양식”과 “이웃의 죄에 대한 용서”와 “시험에 들게 마시고”)은 종말 이전의 역사지평에서 실천되어야 할 기독교인의 삶에 관한 것이리라.

이상과 같은 <셋이 한 쌍>의 역사적이고 신학적인 중요성을 감안할 때, 사도신경과 주기도문과 십계명을 우리말로 바르게 번역하는 일은 아무리 강조하여도 결코 지나침이 없을 것이다.

우리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의 모든 총대들은 이와 같은 <셋이 한 쌍>의 중요성을 다시 인식하면서

## 바르게 번역된 사도신경 · 주기도문 · 십계명의 한국교회내 사용을 위해 각별한 노력 절실'

이에 대한 바른 번역과, 한국교회 안에서의 예큐메니칼한 인정과 수용과 사용을 위해 각별한 노력을 해야 할 것으로 기대된다.

## 2006 성경암송대회 임박

10월22일(주일) 예선, 10월27일(금) 본선

2006년 성경암송대회가 한 달여 앞으로 다가왔다. 이번 성경암송대회는 디모데 전서를 본문으로 하며 10월22일(주일) 각 교회학교별로 예선을 갖고 10월27일(금) 본선을 갖는다.

많은 성도들이 참여하여 하나님께 영광드리기를 기도한다.

## 에스더 전도회 특강

9월13일(수) 오후1시 501호

에스더 전도회에서 9월13일(수) 오후 1시, '관계의 영성'을 주제로 특강을 가지며 강교자 교수(YWCA 부회장)가 강사로 선다.

성도들의 많은 참여바란다.



# 이웃사랑 · 사랑의 집 건립을 위한 열린 바자

## 오광환 집사(2006 열린 바자 기획 부장)

우리교회는 매년 결실의 계절이 되면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성도들이 옥합을 깨뜨리는 심정으로 자신의 귀한 것들을 바치며 열린 바자를 개최합니다.

농어촌 교회를 통해 특산지에서 오는 농수산물과 기증품, 교구 식구들이 정성껏 준비하는 먹거리를 판매한 수익금으로 선한 일을 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있습니다. 바자의 수익금은 불우한 이웃과 장애우들을 위한 사랑의 집 건립을 위해 사용하게 됩니다.

바자위원회는 각 교구가 신청한 판매 품목을 조정 결정하였으며 간사 중심으로 수 차례 준비모임을 갖고 알차고 특색있는 바자가 되도록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농어촌교회를 통해 지방에서 올라오는 농수산물 등의 구매는 미자립교회에 많은 도움을 주게 될 것입니다.

이웃을 초청하는 일과 전도에 이번 열린 바자를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바자회(Bazaar)란 원래 '공공 또는 사회사업의 자금을 모으기 위하여 벌이는 시장'을 뜻하며, 우리말로 '자선 장터'나 '자선 특매장'으로 다시 풀어 쓸 수 있다. 전통적으로 바자회에는 평소 자신의 집에서 아껴 사용하던 물건이나, 개인이 소장하고 있던 가치 있는 물품들을 판매장에 내어 놓음으로써, 그 물품이 꼭 필요한 사람들로 하여금 다시 활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이는 단순히 물건을 아끼고 함께 나누는 의미뿐만 아니라, 좀 더 여유 있는 사람이 그렇지 못한 사람을 위해 베푸는 자선의 뜻도 담겨 있다고 할 것이다.

하지만, 요즘의 바자회는 바자회 본래의 의미

가 많이 퇴색되어 가는 듯하다. 우리 주위의 바자회는 어느덧 개인 소장품이나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 위주로 판매가 이루어지기 보다는, 고가의 신제품이 버젓이 판매되는 것을 볼 수 있다. 또한, 바자회장은 장사꾼들의 알뜰한 상술이 판을 치기도 한다.

## 바자 본래 의미 살려야...

이번 우리 서울교회는 9월 21일(목)~22일(금) 양일간에 걸쳐 <이웃사랑과 나눔의 집 건립을 위한 바자회>를 갖고자 한다. 아무쪼록 이 귀한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바자회 본래의 귀한 의미를 회복하여 하나님과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한다.

### 동정

- 이종윤 목사는 14일(목) 북한구원운동 공동회장단 모임을 갖는다.
- 특녀 : 김미영 성도 최재혁 성도8/25 (미국 텍사스 거주)
- 이사: (2교구) 송순옥집사송파구 삼전동 72-21 (4교구)박순옥 권사 서초구 서초동 1442-7 서초자이 apt (11교구)한상준 집사, 임명숙 집사 송파구 잠실동 294-10 현대빌라 302호416-4556
- 주간식당봉사: 엘리야선교회(9월10일) 모세선교회 (9월17일)
- 금주의 식사제공: 최영자 집사 (자녀결혼 감사하며) 교회제공

### 예배 및 집회

구분	시 간
주일예배	I부 오전 9시
	II부 오전 11시20분
	III부 오후 2시
찬양예배	주일 오후 5시
영어예배	주일 오전 11시20분
수요예배	I부 오전 11시
	II부 오후 7시
금요기도회	오후 9시30분
새벽기도회	매일새벽 5시30분

##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예비된 은혜

### 변성환 (호산나 학교 교사)

캠ป์ 잘 다녀왔어? 라는 말은 참 장하다는 말입니다. 엄마 보고 싶지 않았어? 라는 말은 긴 시간 동안의 이별을 잘 견뎌내 준 아이가 대견하고 고맙다는 말입니다.

유난히도 더운 올 여름 호산나 학교는 충북 괴산에 위치한 보람 청소년 수련원으로 여름 캠프를 다녀왔습니다. 땀복 타기, 야간산행, 다양한 물놀이, 숲 체험, 천연 염색활동, 모험활동 등 매우 다양한 활동들을 함께 했습니다. 어려움도 많았습니다.



혼자서 하기에 벅차고, 두려웠던 활동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선생님들과 친구들이 함께였기에 한명의 친구도 물러나지 않고 당당히 해냈습니다. 12박 13일은 고단했지만 참으로 감사하고 즐거웠습니다.

매일의 일정은 정말 우리를 위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물놀이가 있는 날이면, 하늘에 눈을 돌릴 수 없

을 만큼 빛나는 해를 준비해 주셨고, 산에 오르는 날이면 너무 덥지 않게 이른 새벽 촉촉한 비로 대지를 식혀 주셨습니다.

12박 13일의 긴 일정 동안 기상이변으로 인한 프로그램 변경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호산나 여름캠ป์는 사랑과 기도로 준비된 모든 일정을 무사히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돌아온 모든 이의 얼굴에는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묻어 있습니다.

자신감으로 무장된 우리 호산나 친구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든든한 군사들이 되었습니다.

누구도 시도하지 않은 12박 13일의 도전은 하나님과 선생님들 우리 친구들의 열정으로 이뤄 낸 것입니다. 오늘, 지금 이 순간도 많은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준비하고 함께하는 저희에게 지금과 같이 따스하고 깊은 사랑을 주시기를 두 손 모아 기도해 봅니다.

## 서울 주간기도

###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1. 30학기 목회자신학세미나, 서울성경대학 각종 열린프로그램 중은 열매 맺도록
2. Pilgrims' Vision Trip(성지순례단) 은혜롭게 준비되도록
3. 새로 번역된 주기도 · 사도신경 한국교회가 사용되도록
4. 사학법 개정과 전시작전권 단독행사 요구 철회되도록

### 교회외시는 길



▶ 대치역 2번 출구에서 걸어서 3분 거리